“영유아 유기, 함께 예방해요”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 개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여성 인권을 위해 발의된 ‘낙태 허용법’은 근원적인 문제 ‘생명존중권’에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 산모와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국가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성 인권을 위해 출발한 낙태허용과 아기 생명 살리기 이념 속에 불자들과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모와 아기를 위한 생명보호 공간’이 문을 열어 우리사회에 생명 존중에 대한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는 4월 29일 부산 홍법사 내 행복드림센터를 개소했다. 행복드림센터는 말 그대로 ‘산모와 아기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다. 버려지고 버리는 삶에서 벗어나 생명을 모두 함께 보호하고 책임지는 공간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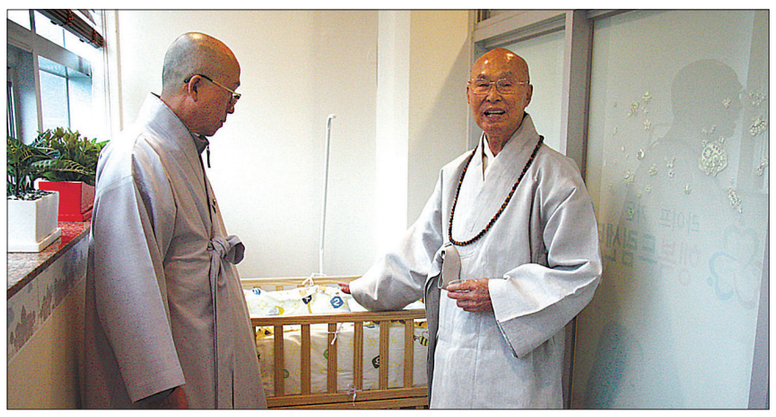
행복드림센터는 가장 먼저 영유아 유기를 예방하는 시스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행 등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을 받고 임신기간 괴로움을 당한다. 가장 축복 받아야 할 시기에 산모들은 화장실서 아기를 낳고 비닐에 싸서 유기하고, 추운 겨울 하수구에 버려져 아기들은 목숨을 잃기도 한다. 아기를 무사히 낳는다고 해도 경제적 상황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복드림센터는 아기를 임신한 순간부터 상담소를 운영, 도움을 준다.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아기와 산모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아기를 낳은 후 산모의 최종선택을 존중, 아기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버려지는 아기를 위한 베이비가든(베이비박스)을 운영한다.

부산 홍법사 뒤 3층 규모로
의료장비 · 상담시설 구비해
산모 · 아기 지원 체계 갖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베이비박스는 아기들이 유기되는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키울 수 있는 시작점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행복드림센터는 유기된 아기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안전히 인계해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특히 아기를 인계할 때 정보를 확인, 산모가 아기를 찾을 때를 대비한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한 대사회적 활동을 위해 행복드림연구소를 운영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생명살림 운동을 펼친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4월 29일 홍법사 내 행복드림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사장 정각 스님(사진 오른쪽)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행복드림센터는 홍법사 뒤에 위치하며 3층으로 이뤄져 있다. 1층은 박스 형태가 아닌 방 전체를 활용했으며 아늑한 공간으로 마련됐다. 산모가 아기를 넣어두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알림 시스템이 작동, 상근 직원과 봉사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기본 의료장비 및 상담실이 있으며 비밀을 확실히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3층에는 상담소 및 아기보호시설이 있다.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및 미혼모를 위한 공간이며 유기된 아기를 위한 보호 공간이다.

이사장 정각 스님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불행하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산모가 돼야 하며, 아기들은 태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사회적 아픔을 해결해 보고자 함께 나서게 됐다”며 “함께 동참하고 생명을 위한 보이지 않는 울타리 역할로 모두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행복드림운영센터는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와 홍법사가 주관하며 동의대학교, 보훈병원, 부산참여연대, 추 심리치료 정신의학센터,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양정청소년 수련관 등이 협력한다.

“병고의 아픔 위로한 연등”

부산 비구니모임 화엄회
21년째 부산대병원 봉사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봉사 모임 화엄회가 봉축을 맞아 부산대학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했다.

화엄회(회장 상화)는 4월 28일 부산대학병원을 방문해 제21회 자비나눔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화엄회는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매년 부산대학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화엄회 스님들이 부산대병원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학병원 로비에 스님들이 마련한 음료와 떡 그리고 진주 염주 등 1700여개 선물이 가득 찼다. 환자를 비롯해 병원 종사자 모두에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선물을 전하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선물이다. 스님들은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손을 잡았다. 환자들은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찾아와줘 큰 위로가 된다”는 말을 전했다.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한 회장 상화 스님은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쾌유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방문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치료해 나가면 회복도 빨리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화엄회는 매년 환자들을 위한 봉축 선물을 나누고 있다. 병원 봉사를 위해 시작된 화엄회 모임은 올해 26년차이며, 봉축을 기념하는 선물 나누기는 21년째 진행되고 있다. 매년 선물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만 1000만원, 지난 20년 동안 2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됐다.화엄회는 병원 내 봉사모임으로 시작해 국내 및 국외 자비나눔 실천모임으로 확대됐다. 현재 화엄회는 40여 명의 스님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신병교육대 포교 후원, 네팔장학금 지원을 통한 인재불사, 미얀마 학교건립불사 등 활발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부산대병원 내 불교법당을 운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불교법당은 9평으로 크기는 작지만 봉사자들과 환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있다.

한편, 화엄회는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도 기탁했다. 화엄회는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아름다운동행에 강원 속초 · 고성 산불 피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께서 회비를 틈틈이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흔쾌히 산불 피해 복구에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윤호섭 기자

혜암 대종사 유훈 기리다

혜암문도회, 혜암 대종사 탄신 99주년 법회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 탄신 99주년 기념법회가 4월 26일 해인사 원당암 선불당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혜암 스님 탄신 99세를 기리기 위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과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혜암문도회장 성범 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오직 공부하다 죽으라는 그때의 스승님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돌이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혜암 대종사는 1946년 해인사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제10대 종정, 원로회의 의장, 해인총림 방장 등을 역임했다. 평소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수행정진을 강조했다. 이날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정리한 혜암 대종사의 상당법어집 〉공부하다 죽어라〉 봉정식도 봉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어르신 섬기는 쌍봉사 봉사단

진안 용담면 어르신 200명 초청해 잔치 열어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는 4월 26일 진안군 용담면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초청 섬김봉사를 진행했다.〈사진〉



용담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200명이 참석한 섬김봉사에서는 한소리 예술단의 공연과 연주, 노래자랑 등이 이어져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딸기, 방울토마토, 참외 등의 과일과 떡, 음료수 등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배식봉사활동에도 동참했다. 보경 스님은 일일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를 살펴 어르신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보경 스님은 “매월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왔다”며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관세음보살 자비 가득하길”

대구 해운정사, 관세음보살 점안 · 산사음악회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4월 28일 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주지 청명 스님과 천불사 정우 스님, 혜림사 도관 스님, 비로암 월오 스님, 원광사 화성 스님, 광명사 성덕 스님, 원각사 원광 스님, 혜룡사 현법 스님, 강효상 국회의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명 스님은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을 봉안하는 의식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해운정사가 지역주민의 안락한 귀의처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3부에는 초청가수 축하공연, 해운정사 신도들의 노래자랑과 화합 한마당 잔치가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강남한양재활의학과의원
원장 허재균 합장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30 반원상가 2층 전화 02)533-9058
